

입장료 징수 첫 날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가보니...

“추억의 산책로 돈벌이 수단 됐다... 씹쓸”

대다수 관광객 입구 땀물다 발길 돌려

“국립공원도 안받는데 돈 받나” 실랑이도

“메타세쿼이아 나무 말고는 제대로 된 볼거리나 편의시설이 별로 없는데도 돈을 내라니요, 어쩐지 납득이 안됩니다.”

담양군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의 유료화 첫날인 15일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날 오후 담양군 금성면 학동리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 이날,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은 밀려드는 차량과 관광객들로 북적대던 예전 분위기와 달리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였다. 매표소에는 ‘일반 1000원, 청소년·군인 700원, 어린이 500원’이라고 적힌 표지판이 붙어있었다.

일부 관광객들은 진입로 입구에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가운데 학동리~금월교 2.1km 구간’에 대해 15일부터 입장료를 받는다는 플래카드를 보고 근처에 주차한 뒤 주변만 둘러보고 발길을 돌렸다. 인근의 죽녹원을 들렀다가 국수거리, 관방제림을 둘러보고 각종 드라마와 영화, CF 등에 소개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로 향하던 관광객들도 대부분 입구에서 땀물었다.

특히 평소 주말마다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산책을 위해 이곳을 찾았던 일부 관광객들은 “국립공원도 안받는데, 왜 돈을 받느냐”고 항의하며 징수원과 실랑이를 하기도 했다.

담양의 명물인 죽녹원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을 보여주기 위해 서울과 인천에 사는 친구들과 함께 왔다는 여대생 송나경(22)씨는 “당연히 무료인 줄 알고 왔는데, 돈을 받으니까 당황스럽다”며 “그나마 저렴한 수준이어서 멀리서 온 친구들과를 위해 표를 끊고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자친구와 함께 찾은 김부영(29)씨도 “예전에 편의 시설이 갖춰지기 전에 지인들과 한적하게 산책할 수 있었던 때가 더 좋았다”며 “단순한 보행로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6시까지 담양군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을 찾은 관광객은 유료 370명, 무료 28명 등 모두 398명으로, 인근 죽녹원을 찾은 2720명의 관광객의 6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 노정훈기자 cjob17@



유료화 첫날인 15일 담양군 금성면 학동리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은 입장료 징수 소식을 접한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되돌리면서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가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농민단체, 쌀 직불금 조례 주민발의 청구

1만6200명 서명 받아 전남도에 접수

광주·전남 농민단체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금 조례를 주민 발의를 청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의장 박행덕)은 “벼 경영안정 대책비를 경지면적에 따라 직접 직불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벼 경영안정 대책비 조례’를 주민 발의로 신청한다”고 13일 밝혔다.

전농은 지난해 8월부터 주민발의 운동에 나서 모두 1만6208명의 서명을 받아 13일 전남도에 접수했다. 주

민발의 청구를 위해서는 전남 지역 유권자의 100분의 1(1만5164명) 이상 서명이 필요하다.

조례안은 벼 경영안정 대책비를 현행대로 전액 직불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남도에 조례안이 주민발의된 것은 ▲2003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0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 조례안에 이어 3번째이다. 학교급식 조례는 제정됐지만 비정규직 조례는 청구인 명부가 제출되지 않아 각하됐다.

벼 경영안정 대책비는 쌀 수입개방으로 인한 쌀값 폭락이 이어지자 농민들의 투쟁으로 2002년부터 전남도(40%)와 시군(60%)이 예산을 편성해 주로 직불금으로 지급해 왔다.

전농은 성명서에서 “박준영 도지사는 2012년부터 벼 경영안정 대책비 550억원중 50%를 삭감해 삭감예산으로 경쟁력 강화사업을 하도록 지시했다”며 “벼 경영안정 대책비마저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전환되면 영세농에 대한 지원은 더욱 고갈되고 양극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외환은행서 사업비 대출·전문관리업체 선정 결의

U대회 선수촌 재건축 ‘탄력’

화정주공조합 총회

2015 광주하계U대회 선수촌으로 사용될 화정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화정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4일 오후 광주시 서구 상무2동 모 교회에서 ‘2012년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고 사업비대출 등 2개 안건을 상정 처리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외환은행 사업비 대출 결의안’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계약지 및 신규 선정 결의안’으로 각각 1526명 중 1463명, 1268명 중 947명이 찬성해 의결됐다.

지난해 12월 3일과 22일 소집된 총회에서는 전체 조합원 2553명 중 서면 위임자를 제외한 10% (254명) 이상이 참여해야 하지만 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상정되지 못했다.

앞서 재건축조합은 대의원회를 소집해 ▲광주시도시공사·현대건설·조합 3자간 업무협약서 체결 추진의 건 ▲단위세대 변경에 따

른 사업시행계획 변경 승인 건 ▲감리비 시행예산 절감 결의 건 등 3개 안건을 처리했으나 사안이 민감한 2개 안건은 총회에 부치기로 했다.

한편, 2015 광주하계U대회 선수촌은 광주시 서구 화정동 주공아파트 19만4496㎡에 3726가구 규모로 건설되며 내년 3월께 모델하우스를 열고, 조합원 분양을 마친 뒤 내년 4월께 착공할 계획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신안 비금에 ‘바둑 명예의 전당’

郡-한국기원 내달 협약--82억 투입

세계 최고의 프로기사 이세돌의 고향인 신안군 비금면에 ‘바둑 명예의 전당’이 건립된다.

신안군은 13일 세계대회에서 대한민국을 빛내고 훌륭한 업적을 쌓은 바둑인의 정신을 기리고 신안을 알리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다음 달 한국기원(사무총장 양재호)과 명예의 전당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바둑 명예의 전당은 비금면 이세돌 기념관 부지 내에 82억원을 들여 건립된다.

군은 올해 우선 이세돌 기념관을 리모델링해 1층에 영상자료 전시관을 만든다. 2층에는 흉상, 손바닥, 기념메달 등 바둑명예의 전당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부취재본부 조완남기자 wncho@

광주지하철, 우수 아이디어 시민 계약직 채용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신규 수익 창출 예산 절감에 가능한 우수 아이디어를 제안한 시민을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15일, 공사의 수익창출과 경비절감을 위한 ‘시민 참여 제안 특별 공모’를 오는 3월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시철도공사는 내·외부 심사위원을 구성해 시민 제안을 평가한 뒤 우수작에는 최대 800만원까지 포상금

을 주기로 했다. 특히, 연간 3000만원 이상 신규 수익 창출 또는 예산 절감이 가능한 아이디어를 낸 시민은 신규 아이디어 사업이 끝날 때까지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호준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시민의 아이디어를 폭넓게 수렴해 경영에 반영하는 소통의 시민참여 경영을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특히 대학생 등 젊은 층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뉴스 브리핑

목포~무안공항 리무진 버스 운행

전남도는 도내 서부권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이 무안국제공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항리무진 서비스를 운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공항리무진 버스는 국내선과 국제 정기선 출발·도착 시각에 맞춰 목포와 무안 버스터미널, 무안국제공항 간을 하루 1~2회 왕복 운행한다.

‘총선 준비’ 전남 통·리·반장 36명 사직

전남도는 15일 4·11총선 공직자 사퇴 마감시한인 12일까지 전남도내 통·리·반장 등 36명이 국회의원

선거 사무에 종사하기 위해 사직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3만7478명 가운데 0.1%로,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 1명, 통·리장 6명, 반장 5명, 주민자치위원 24명이다.

전남 서남권 뱃길 귀성객 13만명 이를 듯

전남 서남권 뱃길을 이용한 귀성객이 13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설 연휴기간(20~25일) 목포, 완도항을 출발해 섬으로 가는 뱃길 귀성객은 목포 7만명, 완도 6만명 등 모두 13만명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15일 밝혔다.

의령남씨 도동공파중중 임시총회 소집공고

의령남씨 도동공파중중(남도동의 후손) 임시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합니다.

- 다 음 -

1. 일시 : 2012년 2월 5일 12시
2. 장소 :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면사무소 앞 산포정
3. 안건
 - ① 이전의 총회결의사항 추진결의의 건
 - ② 문중소유토지 소송제기의 건
 - ③ 임원선임의 건
4. 나오실 때는 인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기 바라며, 나오시기 어려우신 분은 위임장을 보내주시거나 총무 남공식(011-606-5244)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월 16일

의령남씨 도동공파중중
연고하존자 남윤홍, 회장 남평식

무등빌딩임대

- 최상의 업무지역,
- 금융지역, 상업지역
- 지하철역세권
- 신형 주차시설 완비
- 중앙공급식 냉·난방
- 탁월한 무등산 조망권

-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공무원 대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회기록

- 대상 - 공무원, 군무원, 교직원
- 금액 - 3백만 - 4천만 (추가대출가능)
- 금리 - 연 5%~7% (천만원 월이자 5만원 미만)
- 기간 - 1년~10년 (퇴직기간까지 연장가능, 본인선택)
- 시금이용자 제1금융권으로 전환가능 (과대출 포함)

APT 한도 : KBA세-80%+α (60%) 전세권 한도 : 보증금의-80%
 담보대출 금리 : 연 3.93%~ 담보대출 금리 : 연 5.9%~

★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비율은 변동 될 수 있음 ★

흥국금융 대표 1544-5248 담당 010-7112-3135
(대부 제 042호)

신병으로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내가 아닌 다른 존재에 의해 시달리는 분 (병의, 신병)

- ◆ 우울증 / 불안 / 대인 공포증
- ◆ 환청이 들리시는 분
- ◆ 불면증 / 학습증진
- ◆ 기억력 회복 / 주벽이 심하신 분
- ◆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신 분

최면요법으로 병의 퇴치 등등 배우실분

무등산 길상사 주지 범공
문의 062-228-6606, 010-3747-6606

경매특자

- ◆ 실전 경매 개인지도 받으실 분
- ◆ 경매비용 노하우 전수
- ◆ 유치권등 특수물건만 전문 투자
- ◆ 주1회 3개월 완성, 강의로 330만원

주최 오천경매 투자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1 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공무원 특별자금

무조회 기록서비스 · 개인신용관리 철저

-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사립교직원, 군무원
- ◆ 대출금액 | 2백만~5천만원 (무보증/무담보/무조회)
- ◆ 대출금리 | 연 6%정도 (천만원당 월이자 5만원선)
- ◆ 대출기간 | 1년~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 ◆ 과대출 | 연체(등기미달)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실거래용 선순위 대출시세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선순위 - 연 5%~7.5% (은행금율) / 후순위 - 월 1.2%~3%

국민금융 대표 1544-9430 담당 010-5554-2100
(대부 제 042호)